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

강림절과 공의로운 인종무차별주의

월요일 영상 메시지

2020년 12월 7일

강림절의 전통적인 주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강림절의 주제는 희망 (Hope), 평화 (Peace), 기쁨 (Joy), 사랑 (Love)입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올해 강림절을 지내면서 인종차별과 정의에 관한 주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통해, 저는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가 우리 기독교 제자도의 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변화시키는지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종차별의 정의 측면에서 이러한 강림절 주제에 대한 가이드는 Dr. Martin Luther King, Jr. 그분에 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나라와 교회 안에서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요즘 나온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MLK의 말씀, 특히 이런 인종차별 정의에 대한 그분의 설교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적인 말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때와 같은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처럼 인종차별적 불의에 대한 긴급한 상황에 처하였으며 이것은 깊은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강림절의 주제는 희망 (Hope)입니다. MLK의 글에서 그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인지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1963년 8월 워싱턴 DC에서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렵고 상반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꿈 (감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며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앨라배마 주 버밍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폭발물로 네 명의 어린 소녀가 살해당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려는 그의 꿈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었습니다. MLK는 몇 년 후 (1967년), 평화에 대한 크리스마스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이 폭파되고 꿈이 유예되어버린 피해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아직 꿈이 있다고 말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어떻게 든 삶을 계속 움직이도록 하는 활력을 잃게 되고, 여러분이 용기를 잃으면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줄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강림절의 주제는 평화 (Peace)입니다. MLK는 비폭력 옹호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변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는 인종차별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비폭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 철학에 저항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MLK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성, 남성 및 어린이가 구타당하고, 물 폭탄을 맞으면서도 그리고 무섭게 달려드는 개들에 당하면서 ... 비폭력 상태를 유지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그러나 비폭력 지지자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미지였습니다.

오늘날 인종차별 정의를 위해 일하면서 유색 인종 사람들은 비폭력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백인으로서 우리 백인들이 그동안 특권을 누려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는 비폭력적인 마음 가짐이 필요합니다. 1957 년 MLK는 UC Berkeley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비폭력 저항자는 상대를 모욕하거나 패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우정과 이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과거에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우정을 얻는 것입니다. 폭력의 끝이나 폭력의 여파는 고통입니다. 비폭력의 여파는 화해와 사랑하는 공동체의 창조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비폭력적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패배 시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들은 진리를 말할 때 정의와 화해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강림절의 세 번째 주제는 기쁨 (Joy)입니다. MLK의 기쁨은 그의 말과 행동에 표현 된 것보다 더 많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그의 동료들이 서로 농담하며 즐거워하는 사적인 대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MLK는 봉사를 통해 얻는 행복 (기쁨이 무엇인지 말하는 덜 신학적인 용어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와 글을 통하여 그는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자신보다 더 큰 의미 있는 것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가능성이 가장 큼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통해 온다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누구이든, 우리의 은사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봉사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가진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1968

년 2 월 설교에서 "The Drum Major Instinct" 에서 말했듯이, "당신은 봉사하기 위해 물리학에서 열역학의 두 번째 이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로 가득 찬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으로 생성된 영혼. 그러면 당신은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Love)에 대한 내용은 MLK의 가르침과 설교의 끊임없는 주제입니다. 요즘 인종차별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강림절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간단합니다. "나는 사랑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오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물론 그가 말한 사랑이란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보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소망 (Hope), 평화(Peace), 기쁨(Joy), 사랑(Love)을 구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그것은 제자도의 표식입니다.

이번 강림절과 성탄절에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진정한 희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만드는 성육신의 대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MLK가 한때 기도 한 것처럼 기도합시다 :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나보다 더 큰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Amen.

Sally Dyck